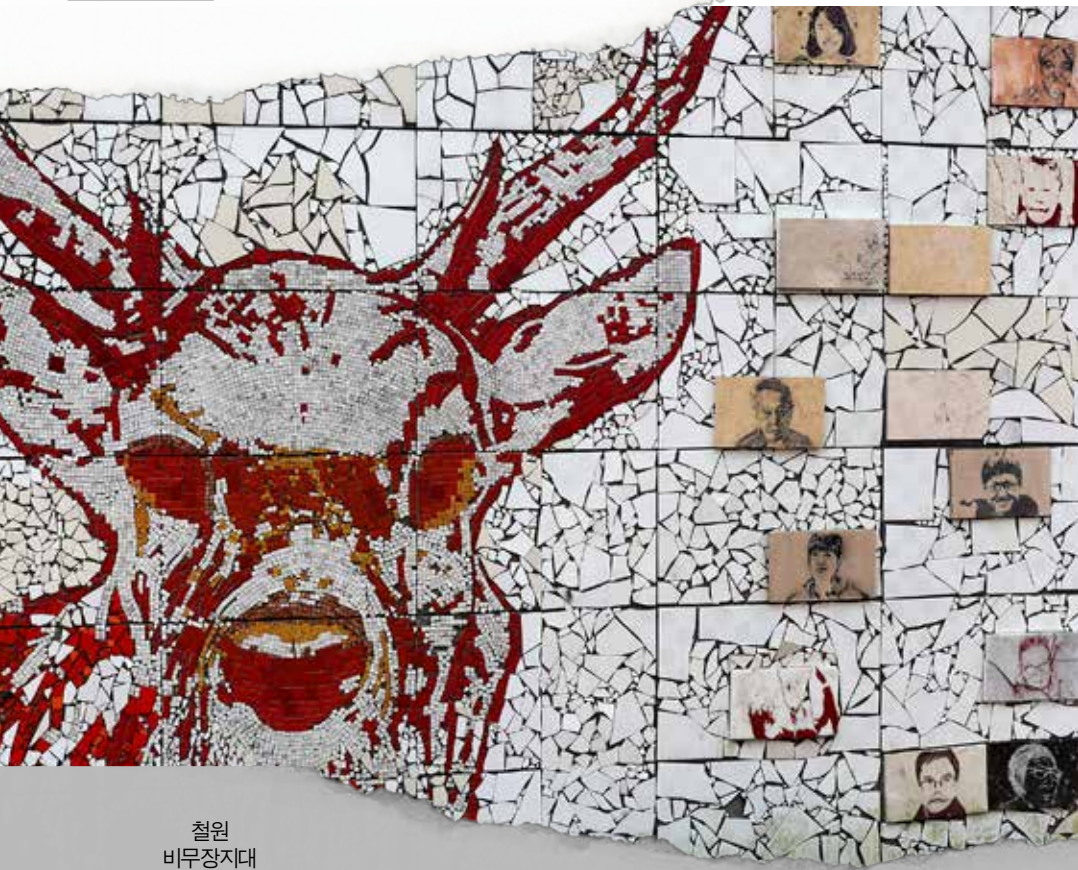




철원
비무장지대

1

고흥
소록도

2

영동
노근리 평화공원

3



다크 투어리즘(Dark Tourism) 되새겨라! 아프지만 기억해야 할 역사

역사를 바로 보자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다크 투어리즘(Dark Tourism)이 뜨고 있다. 말 그대로 단순히 즐기는 여행이 아니라 잔혹한 참상이 벌어졌던 비극의 현장을 돌아보며 자기반성과 교훈을 얻는 여행이다. 아프거나 부끄러운 역사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여름휴가, 방학을 맞은 자녀와 함께 다크 투어리즘 명소를 둘러보면 어떨까.

글 이창호 기자 · 사진 전수영 기자



명소 25곳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한국전쟁 때 치열한 격전지 중 하나였던 철원에서는 승일교, 제2땅굴, 평화전망대, 월정리역, 노동당사 등을 두루 볼 수 있다.

한국전쟁의 산물, DMZ와 민통선

DMZ 민통선(민간인 출입 및 행위 통제구역) 안보관광은 한탄강 가운데 우뚝 선 바위와 그 일대의 현무암 계곡을 총칭하는 고석정(孤石亭)에서 시작한다. 고석정 주차장에 있는 관광안내소에서 하루 4차례 진행되는 안보관광(매주 화요일 휴무)을 신청한 뒤 출입증을 받아 셔틀버스나 개인 차량으로 민통선 안으로 들어간다.

양자리 통제소를 지나 민통선 안에서 처음 만나는 곳은 1975년 초병이 경계근무 중 발견한 제2땅굴이다. 화강암 층을 뚫어 만든 땅굴은 지하 50~150m 지점에 있는데, 군사분계선에서 남쪽으로 1.1km 정도 파 내려왔다. 길이 3.5km, 폭 2.1m, 높이 2m인 땅굴 입구엔 땅굴 탐지 과정에서 지뢰와 부비트랩으로 목숨을 잃은 군인 8명을 기리는 위령탑이 서 있다.

안전모를 쓰고 땅굴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기억하라 총성은 멎었지만, 전쟁은 끝난 것은 아니다'라는 표어가 눈길을 끈다. 허리를 굽히고 500여m 들어가자 갱도 화차와 레일, 북한군이 식수로 쓰던 우물이 있는 마지막 지점이다. 지하수는 쉼 없이 경사가 낮은 북쪽으로 흘러가지만 철제문이 가로막아 더는 들어갈 수 없다. 막연하기만 하던 분단의 현



- 1 철원평화전망대를 찾은 관광객들이 망원경으로 비무장지대(DMZ)와 북녘땅인 평강고원을 바라보고 있다.
- 2 1975년 발견된 제2땅굴 입구 3 평화전망대 내 전시실
- 4 한국전쟁 상흔이 남아 있는 월정리역

1 DMZ(비무장지대) 평화는 총구에서 나오지 않는다

한반도에는 전쟁으로 인한 상처들이 곳곳에 남아 있다. 비무장지대를 품고 있는 강원도 철원은 한국전쟁의 아픈 상흔을 고스란히 간직해 다크 투어리즘 명소로 주목받고 있다.

남북 분단의 상징이자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임을 알려주는 DMZ(Demilitarized Zone, 비무장지대)는 한국전쟁 발발 3년여 만인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에 따라 설정됐다.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북쪽 방향 2km(북방한계선, NLL), 남쪽으로 2km(남방한계선, SLL) 사이의 완충지대다. 한반도를 절반으로 갈라놓은 DMZ는 서쪽 강화에서 시작해 파주·연천·철원·화천·양구·인제를 지나 동해 고성까지 이어진다. 전체 거리는 155마일(248km)에 달한다. 이곳은 '어떤 총칼도 존재할 수 없다'는 의미로 'PLZ'(Peace Life Zone, 평화생명지대)으로도 불리지만 실제로는 양측 초소가 설치돼 있고 중무장한 병력이 주둔하고 있다. 전쟁의 총성은 수많은 이들의 희생 끝에 멈추었지만 6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돈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DMZ를 아시아에서 꼭 가봐야 할





1

1 북한이 착공하고 남한이 완공한 승일교
2 구(舊) 철원 시가지 유적 중에서 거의 완전한 형태로 보존된 농산물 검사소



2 3



실이 피부로 와 닿는다.
어둡고 습한 땅굴을 나와 모노레일을 타고 올라가는 철원평화전망대로 발길을 옮긴다. 바로 앞에 남방한계선이 펼쳐져 있고 그 너머는 농경지였으나 사람의 손이 닿지 않으면서 늪지대로 변한 비무장지대다. 2층 전망대에서는 백마고지, 피의 능선, 평강고원, 북한 선전마을, 낙타고지 등 중부전선 최북단을 한눈에 볼 수 있다. 궁예가 태봉국을 꿈꾸며 세운 DMZ 내 궁예도성의 터는 무성한 숲에 가려 망원경으로도 잘 보이지 않는다. 태봉국의 흔적은 전쟁의 상흔에 지워졌다. 이주섭 문화관광해설사는 "백마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10일간 12차례의 전투와 7번이나 주인이 바뀌는 격전을 치른 끝에 철원평야를 지켜냈다"며 "이곳이 바로 민족분단의 현실과 전쟁의 참혹성을 생생하게 보고 들을 수 있는 다크 투어리즘 명소"라고 말한다.

비극 웅변 '철마는 달리고 싶다' 표지판

철원평화전망대에서 내려와 옛 철의 삼각전망대를 리모델링한 두루미전시관과 경원선의 간이역인 월정리역에 들렀다. 월정리(月井里)는 '달빛 비치는 우물이 있는 마을'이라는 뜻이지만 지금은 전쟁의 상흔이 60년 세월이 지나도 고스란히 남아 있는 긴장의 땅이다. 송송 구멍이 뚫린 역사(驛舍), 세월에 녹슬어 형상도 알아보기 힘든 열차, '철마는 달리고 싶다'는 표지판이 허리 찢긴 한반도의 비극을 묵묵히 대변해주고 있는 듯하다. 표지판의 '평강 19km, 원산 123km'라는 거리 표시가 새삼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인다. 경원선 최북단 분단 지점인 월정리역에서 철원평야를 따라 다시 민통선 밖으로 나오다 보면 전쟁의 참혹함을 보여주는 철원제2금용조합(근대문화유산 등록문화재 137호), 얼음창고(등록문화재 24호), 농산물 검사소(등록문화재 제25호) 등 허물어진 건물의 잔해들이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 아픈 역사의 흔적을 전하고 있다. 관전리 통제소를 지나면 바로 서태지의 뮤직비디오 '발해를 위하여' 촬영지로 유명해진 옛 철원군 노동당사(등록문화재 제22호)가 눈에 들어온다. 한국전쟁 전 철원 일대가 북한 땅이었을 때, 철원군 조선노동당이 지은 노동당사는 양민수탈과 수많은 주민이 체포, 고문, 학살당한 비극의 현장이다. 한 번 이곳에 끌려 들어가면 살아 나오지 못했다고 한다. 지상 3층의 러시아식 건물인 노동당사는 한국전쟁 당시 폭격으로 뼈대만 앙상하게 남아 있고, 총탄과 포탄 자국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다시 고석정으로 돌아오면 안보관광 코스가 끝이 나는데, 고석정 바로 옆에는 한탄강을 가로지르는 승일교(昇日橋·등록문화재 제26호)가 있다. 전쟁과 분단의 기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승일교는 러시아식과 미국식 공법이 혼합된 남북합작의 다리다. 1948년 북한 당국이 공사를 시작했으나 한국전쟁으로 중단됐고, 1958년 한국 정부에서 완성했다. 다리 이름은 한국전쟁에서 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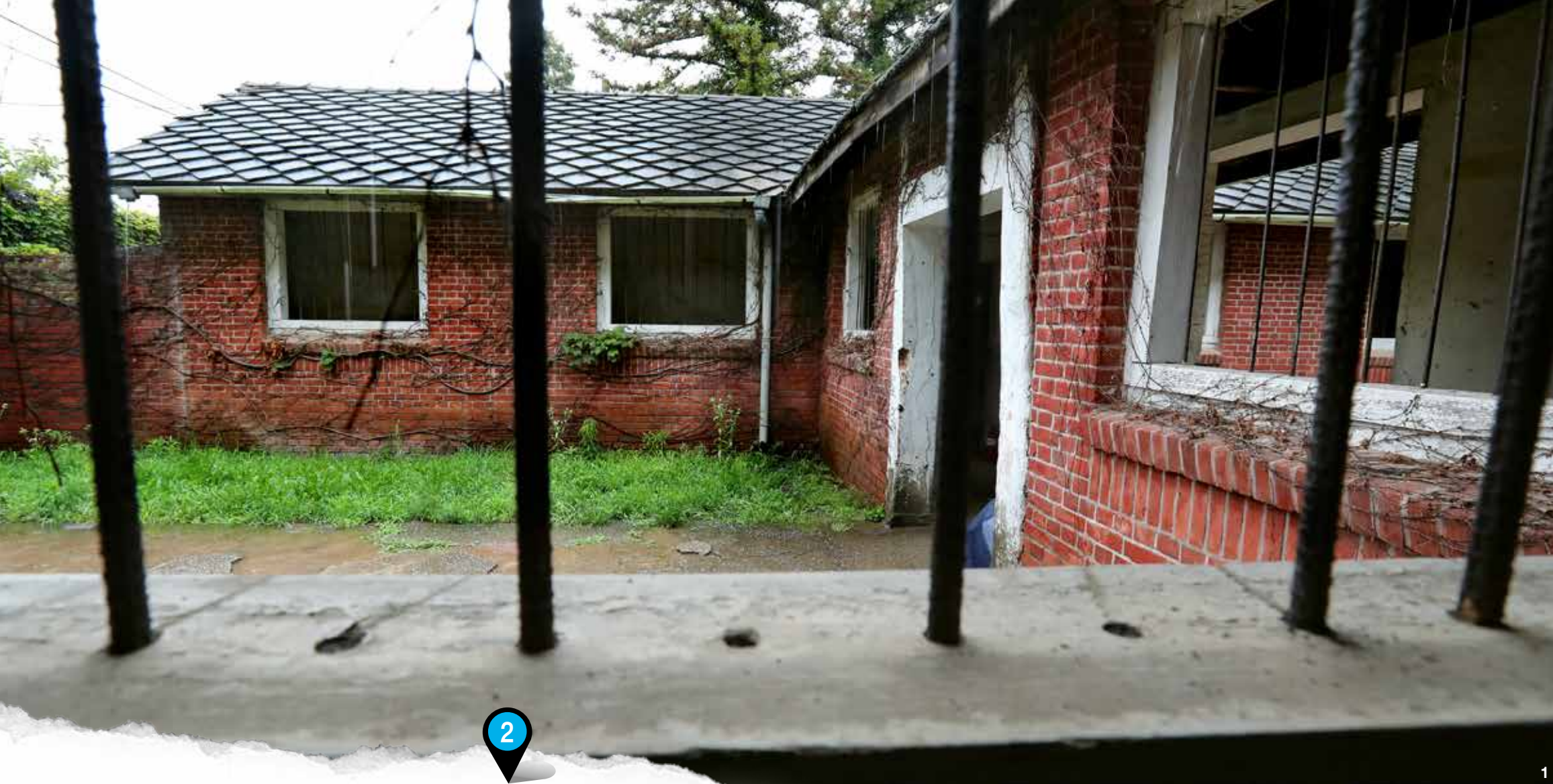


3, 4 민통선 밖에 위치한 노동당사는 한국전쟁 당시 폭격으로 뼈대만 앙상하게 남아 있다. 5 경원선 간이역이었던 월정리역(驛舍)
6 전쟁으로 폐허가 된 옛 철원제2금용조합



6

공을 세운 박승일 연대장의 이름에서 따왔다.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로 남북 관계와 한반도 평화는 변화나 정체가, 진전이나 퇴보나 하는 기로에 서 있다. 남북합작으로 만든 승일교 교각 위에서 남북화해를 고대하며 신경림 시인의 '승일교 찬사'를 읊어본다.
"이 다리 반쪽은 네가 놓고/ 나머지 반쪽은 내가 만들고/ 짐승들 짝지어 진중일 넘고...(중략)...철조망도 못 막아/ 지뢰밭도 못 막아/ 휴전선 그 반은 내가 허물고/ 나머지 반은 내가 허물고/ 이 다리 반쪽은 네가 놓고/ 나머지 반쪽은 내가 만들었듯..."



소록도

오해와 편견이 빛은 애환의 섬

'천형의 섬'으로 불리는 소록도는 술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관람객들은 수탄장, 감금실, 검시실, 중앙공원 등을 돌아보며 통절한 반성과 깊은 깨달음, 큰 위로를 얻는다.



근·현대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곳, 소록도에서 쓰는 말 중에 '몰라 3년, 알아 3년, 썩어 3년'이라는 말이 있다. 한센병의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 치료 시기를 놓쳐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는 생활을 표현한 것이다. 일제강점기 때 나병에 걸려 섬의 모양이 어린 사슴과 닮은 소록도에 강제 수용된 한센인들은 노역에 시달렸고, 낙태와 정관절제 수술 등 모진 세월을 겪어야 했다. 인권은 없었다. 사후에도 검사의 수난을 당했다. 이 때문에 소록도 한센인들은 '3번의 죽음'을 당했다고 말한다. 가족과 생이별로 한 번 죽고, 시신 상태로 해부 당해 두 번 죽고, 화장터에서 불태워져 세 번 죽었다. 한때는 6천여 명의 환자들이 살았지만, 지금은 500여 명의 한센병 환자들이 살아가고 있다.

비인간적인 인권유린의 현장

고흥반도의 끝자락인 녹동항에서 소록대교를 건너 우회전해 해안 쪽으로 내려가면 소록도 주차장이다. 소록도는 관광객 출입 가능 지역과 제한 지역으로 분할됐는데, 관광객은 주차장에서 중앙공원, 한센병박물관까지만 걸어서 돌라볼 수 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개방한다.

주차장을 지나 병동까지 이어지는 길은 '근심과 탄식이 흘렀다'고 해서 수탄장(愁嘆場)으로 불린다. 1950~60년대 한센인들은 자식을 낳으면 직원지대의 미감(未感)시설로 보내졌고, 아이와 부모는 한 달에 한 차례만 도로 양편으로 갈라서서 만날 수 있었다. 김유화 문화관광해설사는 "전염을 우려해 바람의 방향에 따라 부모와 자식의 자리는 뒤바뀌었다"며 "자녀들은 바람을 등지고 부모는 바람을 맞았다"고 말한다.

해안 산책로 끝자락에 있는 '애환의 추모비'와 국립소록도병원 본관을 지나면 중앙공원이다. 중앙공원 입구의 감금실(등록문화재 67호)과 검시실(등록문화재 66호)은 관람객을 숙연하게 한다. 1935년 지어진 감금실은 남과 북에 각각 1동의 건물을 나란히 짓



1, 3, 4, 5 1935년에 만들어진 감금실(등록문화재 제67호)은 일본인 소록도 원장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감금과 체벌이 행해하던 인권 유린의 현장이다.
2 전남 고흥 녹동과 소록도를 잇는 길이 1천160m의 연륙교인 소록대교



1 단종수술과 시신해부가 이뤄진 검시실(등록문화재 66호) 2,4 별 모양의 '세마공적비'와 소록도에서 43년간 봉사활동을 펼친 마리아노와 마가렛 3 오마도 간척사업에 참여한 국제워크캠프단이 세운 구에탑(求瘼塔)



사진 / 천주교주교회의 제공

고 두 건물 사이를 회랑으로 연결했다. 환자를 외부와 철저히 격리하기 위해 붉은 벽돌로 높은 담을 쌓았다. 노역을 거부하거나 탈출을 시도한 한센인은 감금실에 끌려가 체벌과 금식, 감시 등의 징벌을 받았다. 환자들은 법에 보장된 재판을 받을 권리마저 박탈당한 채 당시 소록도 원장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인권을 유린당했다. 일제강점기 인권 유린의 현장인 감금실은 1970년대 이후까지 사용되었다. 감금실에서 나온 환자들은 무조건 바로 검시실로 보내졌다. 살아나온 환자는 강제로 생식기능을 없애는 단종수술(斷種手術)을 받아야 했고, 사망자는 가족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처참한 모습으로 해부를 당했다. 시신은 바닷가에 있는 화장터에서 처리됐다. 시신을 올려놓았던 수술대, 세척 시설 등이 인권 유린의 흔적으로 남아 있다. 젊은 나이에 정관수술을 받은 이동이란 사람의 '단종대'란 시는 가슴을 먹먹하게 한다.

"그 옛날 나의 사춘기에 꿈꾸던/ 사랑의 꿈은 깨어지고/ 여기 나의 25세 젊음을/ 파멸해 가는 수술대 위에서/ 내 청춘을 통곡하며 누워 있노라/ 장래 손자를 보겠다면 어머니의 모습/ 내 수술대 위에서 가물거린다./ 정관을 차단하는 차가운 메스가/ 내 국부에 닿을 때/ 모래알처럼 변성하랴던/ 신



5 벽돌공장 굴뚝 터에 세워진 십자가 6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소록도 방문 기념탑 7 한 달에 한 번 재회하고 이별하는 장소였던 수탄장(愁嘆場) 8 오마간척 한센인 추모공원 내 조각상



의 섭리를 역행하는 메스를 보고/ 지하의 히포크라테스는/ 오늘도 통곡한다."

일본인 원장의 명을 거역했다는 이유로 단종대에 올랐던 젊은 이의 심정을 생각하며 한센인의 '한'(恨)이 고스란히 배어 있는 중앙공원으로 향했다. 솔송나무, 황금편백, 공작편백, 실편백, 당종려, 태사목, 섬잣나무 등 갖가지 나무와 기암괴석이 잘 어우러진 곳으로 마치 수목원에 온 듯하다. 일제는 한센인들에게 벌목부터 석재 채취까지 각종 노역을 시켰고, 나무 한 그루 한 그루에는 한센인의 눈물과 땀이 스며 있다.

1936년 12월부터 3년 4개월 동안 조성된 공원 곳곳에는 한센인들의 애환이 서린 기념물들이 있다. 중앙공원의 상징인 구라탑(求癩塔)은 오마도 간척사업에 참여한 국제워크캠프단이 1963년 세운 기념탑이다. 미카엘 대천사가 나균을 박멸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이 탑은 공원에 우뚝 서서 '한센병은 낫는다'고 웅변하고 있다. 구에탑 뒤편의 세마공적비는 먹먹했던 가슴에 잔잔한 감동을 준다. 43년간 소록도에서 환자들을 보살피며 사랑을 실천한 오스트리아 출신의 간호사 세 명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한 비다. 지난 4월 개봉된 영화 '마리아노와 마가렛'은 종교와 국경을 초월해 청춘을 소록도 한센인들을 위해 헌신한 간호사 두 분의 봉사정신을 그린 다큐멘터리 영화다.

공원 한편의 벽돌공장 터에는 1984년 5월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을 기념해 방한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소록도 방문 기념탑이 서 있고, 벽돌공장 굴뚝 터에는 십자가가 세워져 있다. 1937년 중일전쟁 때는 굶주림을 견디며 매일 수만 장의 벽돌을 구워내는 중노동에 시달려야 했고, 해방 전까지 송진 채취, 가마니 생산, 숯 생산 등 전쟁 군수물자 생산에 동원됐다.

한센인 恨 서린 오마도 간척지

한센인에게 해방이 오지 않았다. 한센병 환자들은 해안을 낀 다섯 개의 섬(고발도, 분매도, 오마도, 오동도, 버루섬)을 연결한 모양이 말(馬)의 형태를 닮았다 하여 붙여진 오마도(五馬島) 간척사업에 동원됐다. 한센인들은 소록도를 떠나 육지에서 살 수 있다는 열망 하나로 1962년부터 삽과 곡괭이로 섬을 허물어 등짐으로 돌멩이를 날라 바다를 메웠다. 하지만 2년여에 걸친 물막이 공정이 80% 이상 진척된 1964년 7월, "나 환자들과 함께 살 수 없다"는 물 주민들의 반대로 공사는 중단됐고, 한센인의 꿈은 산산조각이 났다. 이후 사업주체가 전라남도와 고흥군 등으로 바뀌면서 1988년 말 완공됐다.

소록도에서 약 12km 떨어진 '오마간척 한센인 추모공원'에는 당시 한센인의 고된 노동 장면을 새긴 조각상이 세워져 있다. 이곳에서는 한센인들이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오마도 간척지와 소록도가 한눈에 보인다.



노근리 평화공원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기억해야 할 학살

충북 영동 노근리 사건은 한국전쟁 중에 발생한 가장 대표적인 민간인 희생 사건으로 꼽힌다. 학살 현장인 쌍굴다리 인근에 조성된 노근리 평화공원은 부끄러운 역사 흔적과 아픈 기억을 통하여 '평화와 인권'을 생각하게 하는 공간이다.

1, 2, 3, 4 한 공간에서 일어난 슬픔은 그곳에 가야만 생생히 느낄 수 있다. 노근리 사건 현장인 쌍굴다리와 총알 자국



"노근리 사람들은 두 번 죽었는지도 모른다/ 미군은 인민군이 두려워 그들을 죽였고/ 우리는 미국이 두려워/ 그들의 진실을 외면했다/ 서기만 하면 죽는 거/ 오기만 하면 죽는 거/ 삶은 죽음보다 처절했다/ 반세기가 흘러도 쌍굴다리가/ 아직도 눈을 감지 못하고/ 두 눈을 크게 뜨고 있다/ 진실을 밝혀달라고..."

— 정삼일 시 '말하라! 그날의 진실을' 중에서

노근리 사건은 한국전쟁 초기인 1950년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 동안 북한군 공격에 밀려 후퇴하던 미군에 의해 발생한 민간인 학살사건이다. 1950년 7월 26일 정오경 500~600명의 피란민이 철로 위를 걸어서, 그 선두가 노근리 쌍굴 서쪽 약 100m 지점까지 접근했을 때 미군기가 피란민 대열에 공중폭격을 가해 수많은 사람이 희생당했다. 이 폭격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쌍굴 안으로 도망쳐 들어가자 미 제1기병사단 7기갑

연대 소속 군인들은 이들을 가두어 놓고 3박 4일 70여 시간 동안 총질을 해댔다. 이때 젊은 사람들은 탈출하였으나 어린이, 여자, 노인들은 쌍굴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쌍굴은 두세 겹씩 덮인 주검으로 아수라장이 됐다.

무고한 비무장 민간인이 비참하게 희생된 이 사건은 노근리 사람들에게는 평생을 짓누른 지독한 트라우마로 남아 있다. 살아남은 유족은 오히려 반미나 빨갱이로 몰릴 것을 우려해 학살의 진상을 규명해달라고 요구하지도 못했다.

당시 장남과 딸을 잃은 고(故) 정은용 씨는 1994년 실화소설 '그대 우리의 아픔을 아는가'를 펴내 노근리 사건의 실체를 세상에 알렸지만, 진상 규명 작업은 당사자 대다수가 사망한 데다 가해자의 은폐로 지난한 싸움이였다.

사건이 발생한 지 50년 만인 1999년 AP통신 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고, 비로소 한미 양국정부가 진상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2001년 1월 빌 클린턴 미 대통령은 노근리 사건과 관련해 사과 입장이 아닌 유감을 표명했다. 민간인들이 집단으로 학살됐는데, 죽인 사람은 없었다. 이후 2004년엔 진상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 신고를 받아 226명(사망자 150명, 행방불명 13명, 후유장애 63명)이 희생자로, 2천 240명이 유족으로 인정됐다.

2011년 10월에 조성된 '노근리 평화공원'에는 노근리 사건의 전말을 엿볼 수 있는 평화기념관, 희생자의 넋을 기리는 위령탑,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배우는 교육관 등이 들어서 있다.

평화기념관, 인권의 소중함 조명

서울 종로구 대학로의 마로니에공원 설계자인 고 이중호 건축가의 작품인 평화기념관은 평화의 샘, 추모의 방, 고통의 벽, 전시실 등으로 구성됐



1 평화기념관 전경 2 지하 전시실 3 지상 1층 전시실
4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에 실린 정은용 노근리사건 희생자유족회장의 부고 기사
5 무거운 마음으로 피란 떠나는 모습



6 위령탑의 조각상은 당시 노근리 피란민 대열을 형상화했다.

다. 방문자센터를 나와 화색빛 콘크리트 길을 따라 내려가면 지하 전시실이다. 입구의 영상실에서는 '인권과 평화의 이름, 노근리'라는 제목의 15분짜리 영상을 관람할 수 있다. 관람객을 맞이하는 전시실 첫 공간에는 "인권회복은 수많은 이들의 땀과 희생으로 이뤄지며, 평화는 누리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라는 문구가 붙어 있다. 평화기념관이 지어진 이유다.

'아픔이 서린 기억의 조각' 코너에서는 터치스크린을 통해 생존자 24명과 미군 4명의 증언을 들을 수 있다. 어머니와 동생을 잃은 정명자 할머니(당시 10세)는 "아기의 엄마가 옆드려 돌아가셨는데 아기가 배가 고프니까 등에서 내려와서 젖을 빠는 모습에 눈물을 흘렸다"고 증언했다.

쌍굴을 재현해 놓은 '비통의 길'을 지나면 노근리 사건 이후를 조명한 지상 1층 전시실이다. '진실의 문을 두드려라'와 '진실을 향한 목소리' 코너에서는 노근리 사건을 기록한 한국사 교과서, 고 정은용 씨의 손해배상 청원서 등을 통해 진실 규명에 나선 생존자들과 유족들의 끈질긴 노력을 살펴볼 수 있다. 진상규명을 위한 AP통신의 취재 과정, AP 보도 이후 국내 매체에서 노근리 사건을 보도한 내용, 한국과 미국 정부의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 노근리사건 특별법 관련 관보 등이 시선을 끈다.

노근리 평화공원 맞은편에는 경부선 철도 개통과 함께 개근천 위에 축조된 아치형 교각인 쌍굴다리(등록문화재 제59호)가 있다. 원통한 죽음과 생존자의 아픔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쌍굴다리의 수많은 탄흔은 보는 이의 가슴에도 탄흔을 새기는 듯하다. 쌍굴 내부에 콘크리트를 덧씌우는 보강공사를 하면서 총탄 자국 등 그 당시 흔적이 많이 훼손된 것이 아쉽기도 하고 한없이 부끄러웠다.

노근리 사건의 피해유족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노근리 국제평화재단'은 '노근리인권평화학술제' '노근리세계대학생인권평화캠프' '노근리평화상제정 및 시상' 등 평화와 인권을 주제로 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구도 노근리국제평화재단 이사장은 "노근리 사건은 국내외적으로 대표적인 인권침해사건으로 다시는 이러한 비극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는 게 중요하다"며 "노근리 평화공원은 인권과 평화교육의 산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했다. 📌



Additional Information

비극의 현장은 살아 있는 교육의 장이다. 제주 4·3평화공원,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이스라엘 야드바셈, 중국 난징대학살기념관,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 국내외에서 이름이 널리 알려진 다크 투어리즘의 명소다. 국립국어원은 다크 투어리즘을 순화한 용어로 '역사교훈여행'을 제시하고 있다.

슬픈 역사를 기억하다
제주 4·3평화공원

"이제 알겠느냐. 슬픈 역사, 그날 이후 제주의 서정은 그냥 그대로의 서정이 아니었음을. 섬 사람들은 왜 해가 뜨고 지듯이 잊을 수 없는 내면의 상처를 지니고 사는지를. 수많은 주검들이 떠다니는 바다, 한 치 앞도 안 보이게 휘몰아치던 폭설의 한라산, 우왕좌왕 살기 위한 발자국 딛지 않은 곳 없으며, 이 섬 어느 곳인들 안전한 곳 있었겠느냐는 말을..."

- 허영선의 '제주 4·3을 묻는 너에게' 중에서

2008년 3월 개관한 이래 연평균 18만 명이 찾는 다크 투어리즘의 명소가 된 제주 4·3평화공원은 수만 명의 양민이 희생된 4·3사건의 실상을 제대로 느끼고 현재를 되돌아보는 공간이다. 4·3평화기념관은 역사의 동굴, 흔들리는 섬, 바람 타는 섬, 불타는 섬, 흐르는 섬, 새로운 시작 등 총 6관으로 구성됐다. 4·3사건의 역사를 찾아 가는 여정의 첫 관문인 역사의 동굴을 지나면 원형의 천장 아래 누워 있는 '백비'(비문 없는 비석)를 만난다. 4·3 사건의 진정한 해결이 이루어지는 날 비문이 새겨지고, 비석도 세워질 예정이다. 4·3은 아직도 정명(正名)되지 못한 역사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2관과 3관은 제주 4·3사건의 도화선이 된 관덕정 앞의 3·1사건을 시작으로 1948년 4월 3일 새벽에 일어난 무장봉기의 발생 과정과 배경을 보여준다. 4관은 초토화 작전과 민간인 대량학살, 그 이후 한국전쟁 기간형무소 재소자 학살까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벽에는 죽음의 다양한 형상들이 하얀 봉대로 둘러싸인 부조물로 표현돼 있다. 5관은 4·3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다양한 역사적 자료들을 통해 상처와 아픔, 그 회복 과정을



사진 / 박지호 기자



사진 / 박지호 기자

을 보여준다. 진상규명에 대한 끊임없는 요구는 2000년 1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으로써 그 열매를 맺었다. 6관의 출구통로에는 관람객들의 소원이 새겨져 있다. 양민 학살의 현장을 재현한 다량수 동굴 특별전시관에는 토벌대를 피해 생활하던 주민들이 질식사한 현장을 재현해 놓았다. 4·3평화기념관 밖에는 위령탑과 각명비, 위패봉안소, 행방불명인 표석, 추모광장 등이 있다.



사진 / 박지호 기자

▶ 국내외 다크 투어리즘 명소



↑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서대문형무소역사관(사적 제324호)은 우리 민족의 비극과 투쟁이 깃든 다크 투어리즘 공간이다. 1908년 경성감옥으로 개소해 광복될 때까지 백범 김구, 도산 안창호, 유관순 열사 등 수많은 독립운동가가 옥고를 치른 곳이다. 1987년 경기도 의왕시로 형무소 시설이 이전하기까지 민주화를 위해 투쟁했던 열사들이 거쳐 가기도 했다. 움짍달씩할 수 없는 벽관, 반인륜적인 고문 도구 등을 관람하다 보면 과거의 아픈 역사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다.



EPA=연합뉴스

↑ 9·11 테러 추모공원

2001년 9월 11일 미국 뉴욕의 쌍둥이 빌딩(트윈 타워)인 월드 트레이드 센터(WTC)는 오사마 빈 라덴이 이끄는 테러 조직(알-카에다)에 의한 항공기 충돌 공격을 받고 그대로 무너져 내렸다. 3천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끔찍한 테러로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가 경악했다. 미국은 9·11 테러를 잊지 않기 위해 비극의 현장에 추모공원을 조성했다. 추모공원 분수 주변에는 동판을 돌려 희생자 이름을 일일이 새겨 넣었다. 매년 희생자의 생일에는 이름 위에 꽃을 놓아 명복을 빈다.

→ 난징대학살 기념관

일본 제국주의 군대는 1937년 중일전쟁 당시 난징을 점령한 뒤 6주 동안 30만 명을 학살했다. 2015년 '난징대학살 문건'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다. 기념관에는 학살을 자행했던 총과 칼이 그대로 전시되고 학살 장면 사진도 걸려 있다. 사실(史實)을 증언하는 각종 기록물과 생존자의 증언, 발굴된 인골을 둘러볼 수 있다.

← 이스라엘 야드바셈

예루살렘 언덕에 자리 잡은 야드바셈은 세계 제2차대전을 전후로 나치에 의해 학살된 600여만 명의 유대인들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홀로코스트(유대인 대학살) 기념 박물관이다. '야드바셈'은 '이름을 기억하라'는 의미이고, 기념관 출입구에는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는 마라"는 표어가 적혀 있다.